

2008년도 벌써 2월이네요.

차디찬 겨울만 계속 될 줄 알았는데, 어느덧 입춘을 지났습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춥지만, 곧 봄이 오겠지요.

봄의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가슴으로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가 "가슴으로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라는 소식지로 매달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29로 전달되는 129 상담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를 통해 들어보세요.

전 국민이 129를 기억하는 그 날까지!!

보건복지콜센터 직원일동



보건복지콜센터

고객께서 우리 상담원을 칭찬해 주셨어요!

III 참여마당신문고에 소득보장반 이○○상담원에 대한 감사글이 접수되어 소개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꼭 동사무소를 거쳐야 하는지요. 제가 사는 동사무소는 마치 거지가 동냥 받으러 온 것처럼 너무 불친절하고 건성건성합니다.

지난번 복지전화 서비스 신청도 겨우 제가 고개 숙여서 신청했는데, 안된다고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더군요. 129에 전화해서 알아보더니 전화 받으시는 분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해주셨고, 동사무소 방문이 꺼려진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자기가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제가 사는 동사무소, 구청 등에 전화를 해 보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연락이 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그러 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번호와 통보서 내용도 알려드렸구요.

그 분이 다시 알아보시고 전화 주셨는데, 가능한데 동사무소에서 그냥 돌려보내셨다고 가시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겁나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이 전화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겠다고 다시 전화 주셔서 담당자 분 찾아가서 받으시라고 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처음 안된다고 했던 직원이 "아저씨 왜 또 오셨어요"라며 신경질은 내더군요. 그 직원이 잘못을 해서 3번이나 방문하게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옆 사람과 앉아서 수다를 떨니다. 저는 솔직히 동사무소에 뭐 물어보기가 겁이 납니다. 동사무소 말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번 전화 받아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신 분... 이○○님!

늦었지만 그 땐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소외계층이 되고 보니 정말 동사무소에서 조차 소외당하는 사람에게 이○○님은 정말 은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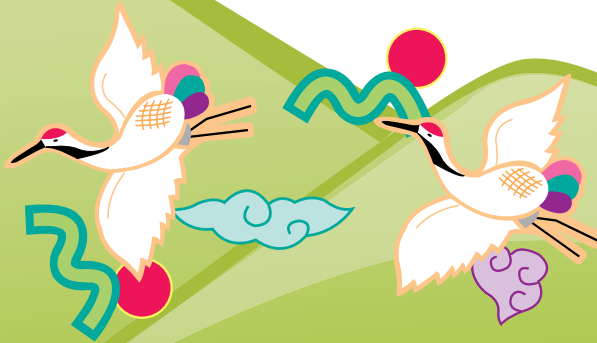
고객께서 우리 상담원을 칭찬해 주셨어요!

謹賀新年

||| 복지서비스반 김○○ 상담원에 대한 감사글입니다.

丁亥年是多事多難했습니다.
깊은 恩惠로 따듯이 잘 지냈습니다.
새해에도 宅內諸節이 均安하시옵고
貴體康安을 祈願합니다.

戊子元旦이○○



고객께서 우리 상담원을 칭찬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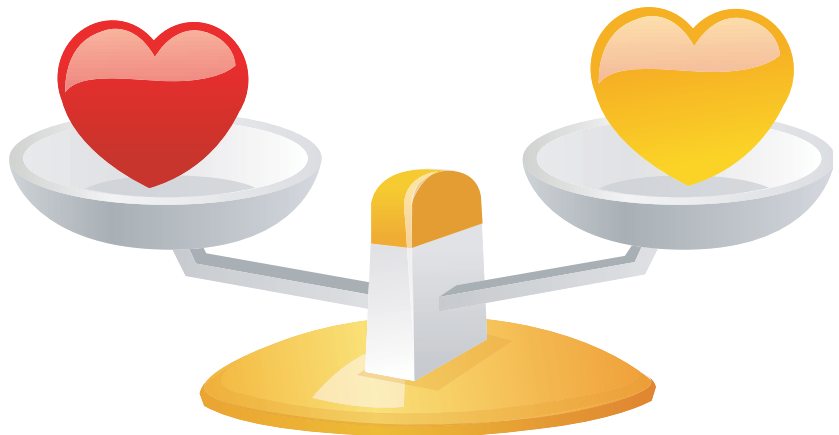


|||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득보장반 안○○ 상담원에 대한 칭찬글입니다.

*** 그곳에 천사가 있었네...***

삶의 벼랑끝에 매달려 어둠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실낱같은 빛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직은 세상에 많은 천사님들이 존재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129 상담자 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저희 세 식구에게 천사입니다.
 덕분에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이들 눈망울을 보며 씩씩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부 모든 직원분들께 거듭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7년 마지막 날에
 의사자 미망인 문○○ 올림



도와주세요

129

고객께서 우리 상담원을 칭찬해 주셨어요!

다시 일어서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의료비 지원 좀 해주세요!’ 하며 젊은 남자의 울먹은 목소리가 왠지 가슴이 찡해오던 상담이었다.

III 소득보장반 김성희

사연을 들어보니 월세보증금 400만원에 25만원의 월세로 살고 있고, 여동생은 후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약물치료만 하고 있다고 한다.

매번 독한 약과 주사로 인하여 동생은 정신은 온전하지 못하고 나이 38살에 혼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다 갑자기 본인도 병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빚독촉은 오고 돈도 없어 수술도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살면 뭐하겠어. 우리 같이 죽읍시다’ 하며 생활비관으로 가족 모두 동반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모두 얘기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두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본인과 동생은 4일 후 퇴원을 하였는데, 또다시 병원비가 빚이 되었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데 병원비 납부하지 못하면 퇴원시키지 않겠다 한다고 하여 너무나 걱정이 많던 중 지자체로 연락하니 129로 한번 전화해 보라고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한다.

사연을 듣는 중 결혼도 못하고 노모에 또 아픈 여동생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무언가 지원책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생기고 있었다.

이번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이 분은 또 다시 삶을 비관하며 자살을 생각할 게 분명했다.

분명 어머니 병원비와 본인이 치료할 동안 생계비만

지급해드리면 다시 일어 설 수 있을 분이였다.

‘이 분이 긴급 지원 제도만 알고 있었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긴급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 요청을 해드리고 구청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해봤다.

자살 외에도 주소득원이 질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도 있으니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선정이 되어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으며 생계비도 지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연락을 하니 본인도 질병으로 수술을 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데 치료가 잘 되었다고 긴급지원으로 모두 연계되어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다.

요즘은 기초노령연금 문의가 증가하여 무척이나 힘들고 지쳐있는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았다고 친가족처럼 상담해주어서, 사회에 불만이 많았는데 상담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감사의 글을 보고 피로가 싸악 달아난 것 같았다.

이 계기로 나의 상담이 어떤 분에게는 삶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중요한 상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나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하겠다고 또 한번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지의 집’ 봉사활동을 마치고...

희망봉사대 129

III 소득보장반 박미정

한파가 몰아치던 2008년 새해. 뇌성마비 및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인 양지의 집을 방문하였다. 2006년에도 봉사활동을 갔던 곳이라 그리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방문하니 약간의 흥분과 반가움이 느껴졌다.

시설로 들어가 봉사를 하기 전 우리는 3층 교육장으로 올라가 양지의 집 시설 소개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전 주의사항들을 전해듣고 2층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방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을 도와 아이들을 돌보았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방으로 식사가 올라왔다. 한 명씩 아이들의 식사를 도왔는데 아이들 모두 혼자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먹여주어야 했다. 내가 식사를 도운 아이는 16살 되는 남자아이였는데 말이 16살이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체격을 지녔다. 특히 그 아이는 인지능력은 물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중증 장애아였다.

그래도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과 발을 어루만져주어야 했다. 특히, 고개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마다 고개를 바로 해주고 먹여주고를 했기 때문에 진땀이 나기도 했다. 식사를 하면서 일부는 입 밖으로 음식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 굉장히 서툴러서 그 친구에게 미안했다. 장애우들의 식사시간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길었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지 등이 다 결릴 정도였다. 그렇게 식사시간이 끝나고 우리도 식당으로 내려가 식사를 했다. 일반인

들은 2000원을 주고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2000원의 음식값 치고는 반찬이 너무 맛있었다. 식사를 하고 얼마간의 휴식 후 드디어 목욕봉사가 시작되었다. 8살부터 성인까지 목욕을 시키는 건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두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씻겼고 나와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은 씻고 나온 아이들을 닦아주고 옷을 입히는 것을 도왔다. 장애아동들이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옷을 입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팔을 빼야하는데 굳어진 팔을 빼기가 너무 힘들어 땀이 구슬구슬 맺힐 정도였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직접 목욕을 해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10명 가까운 친구들을 목욕을 시키고 잠시 쉴 틈도 없이 바로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도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며 청소는 금방 끝났다.

그렇게 봉사활동이 끝나고 시설 원장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양지의 집’ 문을 나섰다. 밖은 매우 춥고 차가웠지만 내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다. ‘양지의 집’ 식구들 모두 항상 밝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129희망봉사대는 며칠전 중증장애인 시설인 양지의집에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한후경씨란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가정이 파탄나면서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에 전신이 마비가 되는 증세가 발생했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양지의집으로 왔습니다. 모든 육신이 마비되어 자기 이름 석자를 쓰는 데에만 5분이 걸립니다. 그 분이 이제 33세이십니다. 그러면서 지독한 고독이 잉태한 시를 쓰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화가가 되고 시를 썼습니다.

네 번째 시집 “엄마! 나도 걷고 싶어요”를 발간했습니다. 유명시인의 시구처럼 엄청나게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입니다. 그 중에 한편을 올립니다

들어봐! 봄이와요 작가 : 한후경

눈이 소담스럽게 내렸습니다
겨울의 끝을 장식하려고

피리를 흔들어 반기는 강아지처럼
발그레 눈 위를 걷다가
고운님 눈매 마냥 살포시
눈에 나를 밀어 넣어
도란도란 이야기도 했었지.

들어봐
신랑, 신부 첫날밤
손가락에 침을 발라 조심스레 뚫는
창호지 문구멍.
짓궂게 엿보는 호기에 찬 눈망울들을.

언 땅 뚫는 여린 손
콩닥 콩닥 뛰는 기대에 찬 부푼 가슴
설레는 작은 시당 소리들



이번달의 홍보소식

매월 국민들에게 희망의전화129를 알리기 위해 우리 상담원 모두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매월 홍보활동 중 주요홍보 내용만 간추려 전합니다.

129 희망봉사대 봉사활동

- 일 시 : 1. 16(금)
- 장 소 : 양지의집 (뇌성마비재활원)
- 봉사활동 내용 : 목욕, 아동숙사 및 시설내 청소, 음식 수발



KBS1 라디오 캠페인 광고

- 방송기간 : 2007.12.24 - 2008.1.30(일1회)
- 방송내용 : 40초 캠페인 광고

KTV 보건복지콜센터 방송

- 프로그램명 : KTV뉴스현장
- 방송일시 : 1.18(금)
- 방송내용 : 129희망봉사대 봉사활동 방송



KTV 보건복지콜센터 방송

- 프로그램명 : KTV 희망리포트-공감
- 방송일시 : 1.21(월)
- 방송내용 : 보건복지콜센터 소개 및 긴급지원사례자 인터뷰



KTV 보건복지콜센터 방송

- 프로그램명 : 아하그런군요
- 방송일시 : 1. 30(수)
- 방송내용 : 보건복지콜센터 소개 및 미담사례자 인터뷰





BEST 상담원

임명옥 (소득보장반)
 권정희 (복지서비스반)
 류주현 (건강생활반)
 장은정 (긴급지원반)



129기네스

상담건수 최다 - 유정윤 (건강보장반)
 상담시간 최장 - 이강숙 (소득보장반)
 Q&A점수 최고 - 권효주 (건강생활반)

JUMP UP

박미정 (소득보장반)
 이득선 (복지서비스반)
 조은경 (건강생활반)
 나선영 (긴급지원반)